

기초형태와 표본을 이용한 자식규역

- 세션제정기법을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초교육학과

임종선

2014

순서

머릿글

1. 연구배경

- 1) 고통평
- 2) 평과 장신구

2. 연구목적

몸글

1. 연구방법

- 1) 세션제공 기법

2. 참고작가

- 1) Georg Dabier
- 2) Marta Marsson
- 3) 이진아

3. 연구작품

- 1) 스케치
- 2) 제작과정
- 3) 연구작업

맺음글

머릿글

1. 연구배경

1) 곤충표본

동물학 식물학 지학 등의 연구 교육에 사용하기 위해 장기간 보존할 수 있도록 특수처리한 생물의 몸체 또는 부분이다.

곤충은 대부분 내장을 들어내고 날개를 펼쳐 전시표본으로 제작한다.

표본은 해충이나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 나프탈렌 또는 방부제를 사용하는데, 이 두 가지의 혼용은 피하도록 한다. 분말 나프탈렌은 살충효과는 없으나 방부효과는 오래 유지된다.

곤충의 구조, 인간과 곤충의 관계, 생태 등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이외에도 취미로 채집하고 구입해서 표본을 만들어 장식하고 또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표본을 만들면서 아주 작은 곤충형태가 보여주는 관절의 형태, 머리 가슴 배의 비례의 아름다움, 단단한 껍질과 그 속에 부드러운 조직들, 미세하게 난 털 등 자세히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는 형태들을 박제해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표본과 장신구

연화작업과 일련의 과정들, 그리고 표본핀으로 고정되어 표본으로 만들어져 장식되었을 때 그 형태가 주는 아름다움은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진다. 곤충은 죽어있지만 그 빛깔과 형태는 오래도록 유지된다. 규격화된 박스 속에 고정되어 있는 곤충을 보면서 이것들이 단순히 어딘가의 벽에 걸리고 곤충박물관에 전시되고 사람들의 취미활동에만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표본자체의 장식성을 극대화 하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곤충의 형태를 다양한 금속기법으로 표현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들을 찾아 그것들을 표본화 시키는 작업을 한다.



2. 연구목적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동물이 바로 곤충이다. 곤충은 몸이 머리, 가슴, 배로 나뉘고 다리가 6개인 동물이다. 곤충은 전체 동물 가운데 약 4분의 3이나 차지할 만큼 그 수가 많고 종류도 다양하다. 지금까지 기록된 종류만 해도 약 100만종이 넘는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은 많은 예술분야와 장신구의 동기로 많이 사용되었다.

사실적인 형태를 표현하거나 곤충의 특징을 잡아 표현한 장신구들이 많다.

단순히 곤충의 형태만을 가져오는 것을 넘어 박제되어 장식되었을 때의 배경과의 조화를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고 살아 있는 것이 결국에 죽어 박제된 모습이 내게 주는 차가운 감정을 색을 최대한 절제시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색을 절제시키는 대신 다양한 금속공예 기법을 활용해 장식성을 극대화해서 장신구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킬 것이다.



곤충형태의 다양한 장신구들

몸글

1. 연구방법

자세하게 관찰해야만 볼 수 있는 곤충의 작은 형태를 그와 어울리는 금속공예기법 중 하나인 세션세공기법을 중심에 두고 표현한다.

곤충형태를 금속으로 표현하는 만큼 새로운 형태에 대한 해석을 나름대로 해서 장식성을 극대화 할 것이다.

세션세공기법 이외에도 주물, 부식, 전해주조, 착색, 조금기법 등 많은 금속공예기법을 활용해 곤충에서 볼 수 있는 단단하고 부드럽고 강하고 약한 대비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화려할 수 있는 곤충의 빛깔들을 절제해서 무채색 위주의 색으로 표현해 내가 느끼고 있는 표본에 대한 이미지를 보일 수 있게 할 것이다.

1) 세션세공기법

금, 은의 연성을 이용, 가는 실 모양 또는 입자로 만들어 바탕 쇠에 뽀얗게 함으로써 장식효과를 높이는 귀금속 공예기술이다.

합금으로 이루어진 금속들을 서로 접합하는 경우, 합금의 구성 성분들이 일정한 조건이 되었을 때, 두 금속은 최저의 용점에서 표면끼리 쉽게 녹아 붙는 현상이다. 때문에 뽀얗게 하지 않고 금속표면에 붙여 독특한 패턴과 질감을 만드는 방법이다.

최저 온도에서 용해하는 eutectic접합 즉 공용접합 이라고도 한다.

날알이 되어 붙는 온도는 815도이다.

세금세공이라고도 한다. 영어로는 'filigree'라고 하고 이탈리아어 'filigrana'에서 유래되었다. 필리그리를 선세공이라고 하면, granulation은 누금세공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세션세공으로서 가장 오래된 것은 BC 2500년경의 우르 왕묘에서 출토된 금제단검이다. 이집트 제 12왕조 초기의 다흐슈르에서 출토된 목걸이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누금세공 기술을 습득하고 있었다. BC 14세기 반경의 투탕카멘 왕묘의 부장품에서도 발달한 상태를 볼 수 있다.

서아시아와 이집트의 세션세공은 트로이와 미케네에서 출토된 금제품을 거쳐서 그리스와 에트루리아로 전해져 고도로 발달하였다.

동양에서는 중국 한나라에 전해져 어미 용과 새끼 용으로 의장된 훌륭한 금대류가 낙랑석암리 9호분에서 출토되고 있고, 5~6세기경의 신라와 일본 고분에서도 귀고리류가 발굴되고 있다. 한국, 이란, 인도 및 중앙아시아 각 처에서는 아직도 이 기술이 존속하지만, 대체로 은세공을 주로한다.



Earrings decorated with a siren and sea shells at the endings, end of the 5th century B.C., London, British Museum

2. 참고작가

1) Georg Dobler

자연 - 추상적 개념 - 가공

자연적인 소재로 만들어진 주얼리는 아름다운 ‘미’를 보여준다.

이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나는 식물과 꽃을 오랜 시간동안 관찰한 후에, 이들을 내 주얼리 작업 소재로 사용한다. 나에게 있어 자연에서 유래한 ‘미’는 깊은 감명을 준다. 풍자적인 작업을 고민하고 다양한 자연 소재를 사용할 때 스스로 만족감을 느낀다. 수집된 자연 소재들과 그들의 가공 형태들은 주얼리 ‘희비’ 구성의 토대이다. 스타일 면에서 볼 때, 나의 주얼리 작품들은 아르누보 예술가 르네 말리크와 비슷하다. 나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담는 나의 주얼리 작품에 이러한 다양한 작업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스스로 허락했다.

게오르크 도블러 2010 작가노트



2) Marta Mattsson



Marta Mattsson
Brooch: Beetle juice 2009
Beetle, resin, yellow cubic zirconias, silver, lacquer



Marta Mattsson
Brooch: Brown beetle 2011
Copper electroformed beetle, cubic zirconias, silver, lacquer

3) 이진아

머리카락과 그것이 이루는 형태를 표현해 내기에 필리그리 기법은 효과적이었다. 필리그리 기법이 중심이 되어 작품을 제작하면서 작업과정이 까다롭고 공이 많이드는 만큼 얻어지는 효과들이 있었다. 촘촘히 자리하고 있으면서도 움직이는 듯 자유롭게 표현이 가능하였고, 금속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탄탄하면서도 섬세한 작업들로 결과물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다.

이진아 필리그리기법을 이용한 장신구 제작연구 2011



두 얼굴 *Anima and Animus*, 2012

브로치
순은, 청은, 폴리머 클레이
60 x 75 x 40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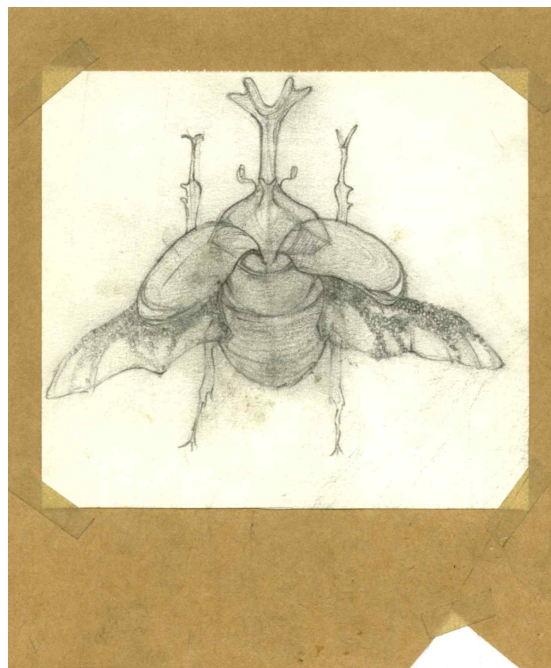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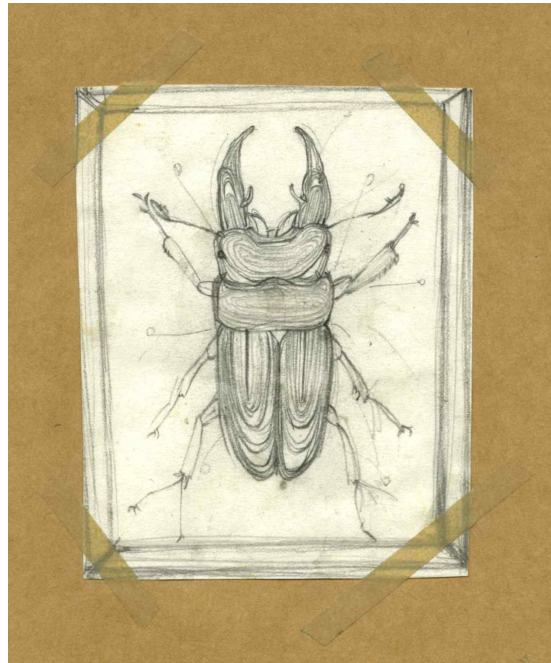
꼬리 아홉개 달린 *Fox*, 2012

반지
순은, 청은
45 x 110 x 50mm

Georg Dobler와 Marta Mattsson의 작품에선 기법이나 형태를 참고했다면 이진아 작가에게서는 세션세공기법에 대한 기술이나 지식, 기법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참고하였다.

3. 연구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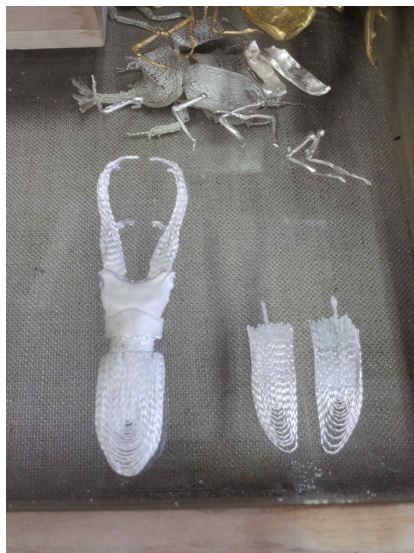
1) 스케치



표본의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다리나 더듬이, 날개가 인위적으로 사람에 의해 고정되어 보이는 형태를 기본으로 스케치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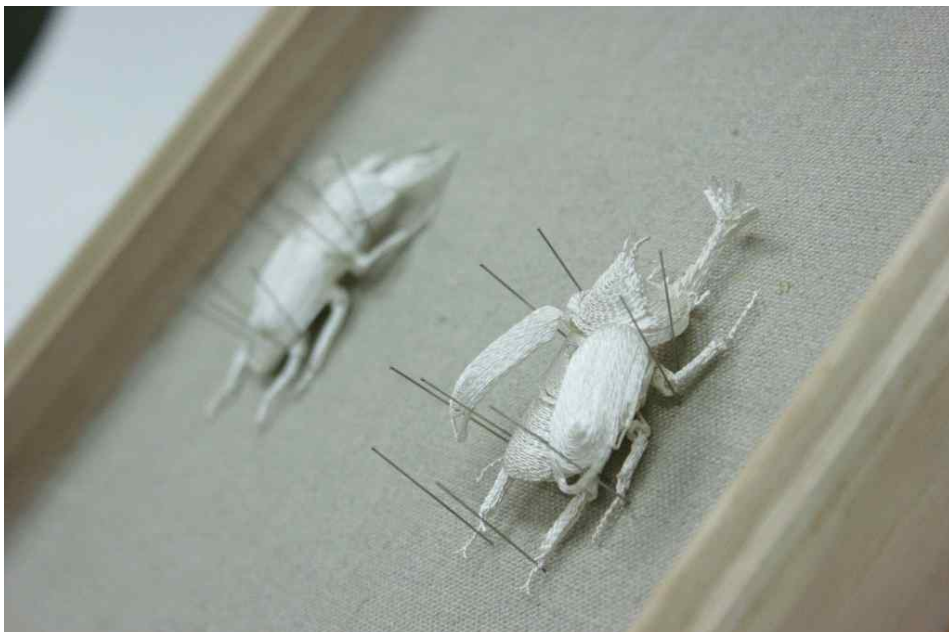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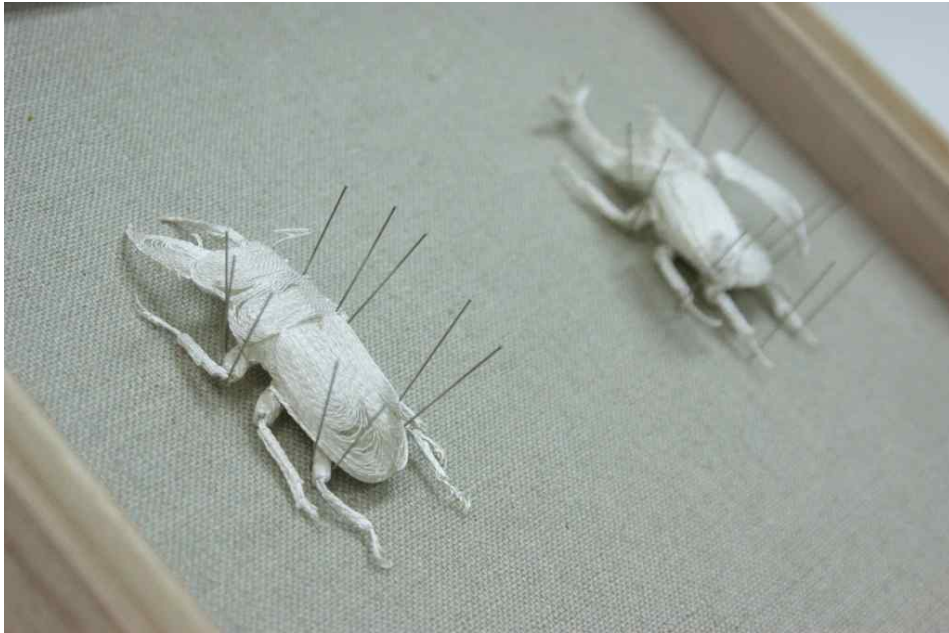
2) 제작과정

1. 세션세공 기법을 하기 위해선 인위적으로 동피막을 입혀야 한다.
이진아-필리그리기법을 이용한 장신구제작연구.2011 논문을 참고로 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2. 형태를 만들기에 가장 적합한 순은선 0.4mm를 주로 이용했고 필요에 따라 0.3mm의 순은선도 사용하였다.
3. 준비된 순은선을 열풀림하고 핸드드릴을 이용해 두 줄을 꼬아준다.
4. 꼬여진 선을 열풀림해 압연기로 살짝 밀어서 선에 면이 생기게 한다.
5. 압연된 선을 열풀림 한 뒤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나간다.
6. 원하는 형태를 묶음철사로 고정시키고 준비된 동성분의 용액을 발라주어 숯 돌 위에 놓고 열을 주어 접합시킨다.
7. 접착된 형태는 동성분에 오염됐기 때문에 질산을 따로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8. 세션세공 된 형태들을 접합할 땐 강뿔을 사용한다.



3) 연구작업

세션세공기법을 중심으로 두었기 때문에 초기작업은 세션세공기법만을 이용해 곤충의 형태를 만들어 갔다. 만들어진 형태의 부분부분을 연결해 나갈 때에는 땀을 사용하였다. 세션세공기법의 장점으론 무게가 가벼워 장신구에 적합하고 기법자체가 보여주는 세세한 부분들이 작은곤충을 만들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 된다.



표본 2013-1 표본 2013-2
순은, 정은
브로치



표본 2014-1
순은, 정은
브로치

표본 2014-1은 주물기법과 함께 형태를 만들었다. 실제곤충을 주물했기 때문에 형태의 사실성을 더했다. 세션세공기법을 한 후 망치질을 해서 풍부한 질감을 표현하였다.



표본 2014-2
순은, 정은
브로치

표본 2014-2는 세선세공의 비중을 줄이고 주물기법의 비중을 늘렸다. 또한 망치질감과 부식을 이용해 금속공예의 다양한 기법을 표현하려 했다.

맺음글

곤충의 형태와 빛깔은 다양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많은 상상력을 일으킨다. 곤충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형태는 완벽히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곤충이 인위적인 연화작업과 표본작업을 통해서 표본핀에 고정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에서 보여지던 곤충의 모습과 반대되는 느낌을 받게 된다. 살아있을 때 활기차고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고 하면 표본상자 속 곤충들은 한없이 가볍고 약하다. 그것들은 나에게 무채색의 형태들로 다가온다. 화려하게 죽어있는 곤충들이 나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를 금속의 물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싶다.